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발행처:충원교회 사물복합식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원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국장:이형수

| 다음주일설교 |

동방 박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생각할 것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왕의 혈통을 입고 계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을 선언한 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유대들 다스리던 헤롯 왕 앞에 한 가지 중대한 질문을 던진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마 2:2a), 유대의 왕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찾아와 경배하는 그들의 태도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하려고 준비하는 이 시기에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마음 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미 5:2). 그러다 마땅히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며 예를 갖추었으니,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동방에서 본 별의 의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세상의 왕을 찾아가 하물러부터 오신 왕이 어디 계시냐는 위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듣고 헤롯 왕은 은 예루살렘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자문을 구했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께 경배하려고 계속해서 별을 따라갔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창 3:1).

경배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다시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만왕의 왕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분이 약속된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별이 메시아가 태어나신 집 위에 멈추어 서서 빛을 발하자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11절). 바로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파니나 선물 교환 등 재미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께 경의를 표하는 일에 철저히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께 진실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참으로 알고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헌신

또한 동방 박사들은 가지고 있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황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순결을 상징하며,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참고로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약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물이 왕에게 선물로 바쳐도 좋을 만큼 귀한 물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각각의 예물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내 모든 보배를 그에게 바치고 싶도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동방 박사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과 요단강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유월절에 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옛날의 영광을 다 상실하고 타락했으며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을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일반 신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메시아를 대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누구이신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무례한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헤롯

헤롯 왕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애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왕위에서 쫓겨나 수도 있음을 알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그는 언제나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내심 알고 있었습니.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위를 메시아에게 선포 내어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은밀히 살해하기를 원했고 동방 박사들을 숙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21세기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실증하려고 하면, 그 때마다 이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려고 애를 씁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서 본받을 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메시아에게 무례한 것을 행합니다. 그들의 습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의식, 심지어는 그들의 지성도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였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위대한 질문을 하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바르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한 증거를 찾았고 그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를 믿고 행동하며 메시아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에게 그들이 했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위대한 결론을 이미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외국으로 여행할 경우 만날 수 있는 육체적인 위험이나 여행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이나 조종한 시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께 온통 집중되어 있었고, 그 관심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보화를 바치고 싶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 왕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였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창 15:5). 이렇게 말씀하심은 장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계획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베후 1:19).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창 22:16). 아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습니까. 그 때 그들을 밤에 대해서 단순히 말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내놓으면서 그 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가 자신들이 유대 땅에 온 목적과 중대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그 별을 따라가십시오. 메시아에게 집중하십시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처럼 메시아에 관해서 단순히 말만 하고 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요란하게 말다툼만 했을 뿐,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만왕의 왕께 경배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각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



김성관 목사

"...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니라"(마 2:1-11)

Sermon for next week

EASTERN MAGI

"...⁽⁹⁾And having heard of the king, they went their way; and lo, the star, which they had seen in the east, went on before them, until it came and stood over where the Child was. ⁽¹⁰⁾And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¹¹⁾And they came into the house and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ed Him; and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presented to Him gifts of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Matthew 2:1-11)

The theme of Matthew's gospel is Christ the King. Its opening chapter trace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o David, thus establishing His claim and right to the throne. Consequently, in this gospel, Jesus is often spoken of as the Son of David, and the One who fulfills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of Messiah. This distinctive approach answered the questions the Jews asked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o claimed to be their Messiah. God foretold His people that their Messiah would come from David (2 Sa. 7:16; Is. 9:7), and in Matthew the proof that the King of kings had come was made certain.

After proclaiming Christ's kingly background and the announcement of His special birth, the Gospel of Matthew mentions that when Jesus was born a great, great question came before the King of Judea,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This great question came from Gentiles, the magi from the east, not Jews. These wise men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came to the palace in Jerusalem "to worship Him". Their perspectives on worshipping Christ reveal the meaning of Christmas. Therefore, as this church and its members prepare to commemorate the birth of Christ, let us also keep in our hearts and minds its true meaning.

Indeed, the King of kings' birth in a manger is a contradictory event. The heavenly side was in respectable order, but the earthly side was certainly muddled. God promised His people, the Jews, that the Messiah would be born in Bethlehem of Judea (Mi. 5:2). They should have prepared for His arrival, so that the Gentiles could have the opportunity to mock them for their zeal. This was the proper order, but they neglected it. Instead, the Gentiles followed protocol in their adoration of the baby. They believed in the meaning of the star. They focused their sights on it, and followed it all the way to Jerusalem. Once there, they asked the earthly king the great question of where his heavenly King was. The king and all Jerusalem with him were troubled. After consulting with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the king told the magi that the Messiah was to be born in Bethlehem of Judea. Even though the King of kings did not have loyal followers or royal lodgings, the eastern magi still followed the star to worship the Son of David, the King of all kings. They walked toward Bethlehem, "and the star, which they had seen in the east, went on before them until it came and stoo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The eastern magi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when they saw the star again.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the deep desire to worship the King of kings. They did not know His name, but they believed He was the promised Messiah, the King of kings. As the star shone down upon the place of Messiah, they entered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to the ground and worshiped Him". Here is the meaning of Christmas. We as a church, and as individual believers, should worship Christ. Instead of focusing on the fun of parties and gifts, we should focus on the reverence of Jesus the Messiah, the King of kings! How many people, in this church, are really worshipping Christ this Christmas? How many people, here today, really believe that Jesus is the promised Messiah? How many of you, right now, are following the same protocol as the magi?

The wise men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to Him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The early church Fathers understood the gold to be symbolic of Christ's deity, the frankincense of His purity, and the myrrh of His death (since it was used for embalming). The main idea was that these were gifts worthy of a king. Their meaning is significant. When you walk into this church,

does your heart cry out,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I want to give Him all my treasure!" True Christians desire to give everything to Christ the King.

The eastern magi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tudy the Bible. They were not descendants of Abraham. Their faith came through the historical stories of God's work in Egypt, the Jordan River, and the Passover told to them by travelers. Even though the nations of Israel and Judah had fallen, and the city of Jerusalem was under Roman control still these magi believed in the King of kings. They asked the greatest biblical question with the greatest practice of faith. Often times, we as Christians respect the promised Messiah in the same ways as the king of Judah, chief priests, and believers did during the magi's visit. We really insult Christ, and neglect our privileged position.

King Herod, whose family, though nominally Jewish, was in reality Edomite. He was not a direct descendant of David. However, when the magi asked him the great question, he became scared because he knew the Bible. He knew deep down inside that someday the promised Messiah would come, and he was not ready to give up his kingship. As such, he deceived the magi because he secretly wanted to kill Messiah. This situation is a reality of the 21st century. Whenever real Christians today practice their faith by emphasizing the Bible and cross, the world tries to persecute them.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as we talk about the Bible, there are those among us who talk about Christmas but really, inside they are insulting the Messiah. Their customs, traditions, rituals, and even intelligence ignore Jesus. True believers saw the star and followed it. They asked the great question, and with certain evidence, they followed and proclaimed their faith. They believed the Messiah was the King of the Jews. They looked for evidence, and found it. They acted upon it, and came to worship. Their words to the king of Judea were an amazing confession of their belief. They had the great conclusion in their hearts. They did not worry about the physical dangers, financial cost, or precious time required for their journey. Their focus was on Christ, and it did not change. They wanted to give Him their treasure. As a result, they came to Jerusalem to witness the mystery of God in the presence of King Herod, and finally were able to meet and worship Jesus Christ.

My dear friends, God told Abraham to look toward the heavens, and count the stars, for He was going to bless him with the same amount of descendants (see Gn. 15:5). Today, we have "the prophetic word made more sure, to which you do well to pay attention as to a lamp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arises in your hearts" (2 Pet. 1:19). Jesus said, "I am the root and the descendant of David, the bright morning star" (Rv. 22:16). Amen. The eastern magi saw the star. They didn't just talk about it, but they took a risk, they took their life and wealth, and moved toward it. They followed Jesus. Their great question and purpose presented in the palace of Jerusalem,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is the meaning of Christmas. They worshipped the Messiah. If you are really looking for Jesus this Christmas season, follow the star. Focus on Messiah! Don't just talk about Him, like King Herod and the high priests, for none of them followed Him. They just quarreled over non-essentials, but none of them worshipped Him. Let's worship the King of kings, and prepare our hearts to follow Him wherever He leads. This is the meaning of Christmas. 

장로 칼럼

총현교회- 지난 50년, 앞으로 50년



노 광 현 (장로, 당회서기)

금년에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50주년을 맞으며 소위 말하는 만세기의 역사가 되었다. 그 동안 우리 교회는 늘 한국교회 앞에서 주목받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많은 시련을 겪어 온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역사 가운데 사라진 교회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아니었다. 교회가 크게 융성하자 교회를 세운 설립자와 그 후손들이 교만해졌고, 교회를 이용하는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세속의 물결에 편승하면서 점차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식으로 변질되더니 멸망하곤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소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로, 하나님과 사도들의 사랑 섞인 책망과 권면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모두 사라지고 옛터와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를 주고 있다. 또한 이집트와 터키 지역은 2-6세기까지만 해도 완전한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국민 98%가 마호메트를 신봉하는 회교국가로 변해 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를 지키고 역사하지 않았던 말인가.

성지순례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목도한 필자는 많은 실망과 걱정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참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총현교회를 놓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도 복음을 버리고 성경제일주의, 회교최대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뿌리깊은 기독교의로 가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세 분의 위임목사를 거치고 네 번째로 1997년에 김성관 목사를 위임했다. 새로 부임한 김성관 목사는 자나깨나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말할해 오고 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믿음과 복음의 신앙이 약한 장로나 집사, 권사들을 통해 역사하여 김성관 목사를 해고하려했으나 하나님의 사람과 보호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셨고 복음에 바로 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 목사님이 와서 얼마나 많은 개혁을 하였는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요약할 수 있는 김성관 목사는 교회에 부임하는 첫날부터 우리 교회에 초창기부터 절이 있어 왔던 기독교신앙을 뿌리 뽑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왔다. 사탄 집사들과 신앙에서 기독교신앙처럼 해로운 것이 없다. 모든 잘못된 신앙적 사상은 여기서부터 생겨나고, 이것은 미신으로 빠지는 함정이고, 결국은 사미비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 기독교신앙이 판치는 곳에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설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만이 하나님, 성경, 예수님,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기독교신앙으로 바로 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하고 무서운 반감으로 달려드는 지를 우리는 그 동안 많이 보았다. 이는 수십 년을 시행해 온 직분에 대한 권위, 자신의 욕심, 대중적인 인기에 열광하려는 마음, 종교적 기득권과 개인의 민족과 적당하게 즐기던 자기 도취적 청춘과 명예와 이익이 송두리째 뚝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하는 바를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목사님의 애씀은 참으로 불쌍한 기조차 하였다. 홀로 외롭고 힘든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듯이 보였다. 모든 시간의 강단에서 몸이 부서져라 외쳐대며 지내온 세월이었다. 한결같이 나아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독교적이든 헌애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파헤치며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교인들과 교역자들이 촌지 안 주고 안 받고, 교회 예산을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 성경적이든 못한 모임을 없애기,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내용의 모임과 행사하지 않기, 찬양대의 솔로리스트, 오케스트라 대원들을 유급에서 무급 봉사로 하기, 교회에서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부담하기, 수련회·영성훈련·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미명 하에 시시때때로 놀러가는 것 금하기, 교회 체면 때문에 남들을 도와주는 일 금하기, 비복음적인 단체에 후원금을 주는 일 금하기, 교회를 자랑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홍보 활동 안하기, 헌신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지 않기, 구제하면서 교회 이름 내지 않기 등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어 나갔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주님의 교회로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일들로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질로 가는 일에만 방해를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강력하게 해 나가자 이곳저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난과 불평과 논리적인 반대들과 걱정이 쏟아져 나왔다. '교회야 그럴 수 있겠거, 사람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위로를 받으려 왔는데 마음이 무거워져서 가게 되니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길 수 있겠거, 개혁도 좋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충의를 모아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소모반은 사람이 없어져 되는 것이 아닌가 등의 이야기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왔다. 남다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종교적 열심이 깊은 사람들의 자기 주장인 것이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의 개혁은 늘 그런 구실로 인해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생명이 마다않고 가겠습니다'라는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는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이다. 마치 정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무서운 반대와 비난과 불평 속에서도 몇 년간 개혁을 시행해 오자, 교회는 매우 단순해지고 명료해졌다. 예배와 집회, 기도회 외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또한 예산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도 없어졌다. 모든 예배와 집회에 철저하게 참석하기, 바른 헌금생활하기, 교회 예산 바로 쓰기, 전 교인 선교에 동참하기, 직분자 바로 세우기, 신분으로서의 (주인)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도지로서 (주인) 총현) 만들기 등이 일을 위해서 그 동안의 조직논리와 기득권과 관행과 습관과 위선과 체면을 버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를 추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온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매년 1년에 세 차례씩 정기총회를 통하여 3일 씩이나, 또 매 금요일 저녁마다 차창의 홍수 속을 헤집고 나서야 (온전한 성전의) 시행을 위하여 성만찬을,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생명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자기 부인을,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위하여 전도를, 오래된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꿔왔던 시온의 날을 바라는 선교를, 헌신과 충성으로 생명을 내걸고 선지자를 따라가는 삶을 위하여 바울의 신앙을) 배우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바른 회회를 향하여 전 교인이 몸부림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먹고 마시는 데 쓰인 비용으로 1년에 1500여 명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고, 500여 명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주기도 했고, 재해를 당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각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앞에 었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생애한 교인들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신학교 강의와도 같은 강론이 펼쳐지는 금요집회에 앞다투어 나와 앉자리를 그득 채우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쫓아온 복음적인 삶에 눈이 뜨여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할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 앞에 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 일에 앞서야 한다. 이제 목사님 혼자서 이 일을 지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이 일은 앞으로 몇 십 년이 흘러가면서 진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 여기서 중단하면 우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음이 나올 것이었고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온다. 새로운 2004년도에도 우리는 중단없이 이 정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새해를 맞는 기본으로 온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를 만들어. 위임목사와 특히 남교역자들과 장로들, 전 제직과 교사들, 찬양대원들, 영아부부터 소망부대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로 되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는 2004년이 되어 보자. 늘 하나님만 바라고 성령님의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우리 후배와 자손들에게 전해 내려갈 때 다시 새로운 50년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생명의 빛에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이다.

복음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기를...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25일(화)~12월 5일(금)	L	11교구 6지역	박성명

◆ 다음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9일(화)~12월 17일(수)	L	15교구 3지역	남용철
12월 11일(목)~12월 19일(금)	D	8교구 6지역	이정훈
12월 11일(목)~12월 19일(금)	D	8교구 4지역	이원진

*선교위원의 범침으로 인하여 국기봉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⑧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행 5:20).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을 급하게 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주목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굳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셨을까? 이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복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이런 새벽 사도들을 급하게 탈출시키시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이런 사실을 세상 깨달고 확신하기를 원하셨다. 즉,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확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선교는 사랑의 관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간 전도지를 읽어주거나 뿌리고 오는 것도 아니다. 선교는 화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살라내는 일이다(엡 2:1 참고). 자옥의 문턱에 바락 서서 자옥문이 열릴 날만 남겨두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외쳐 그들을 자옥문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사도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이런 사실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뛰어들기를 바라셨기에 위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거룩한 긴장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죄인들을 다시 살라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속한 일에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인해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는 우리가 타락없이 부추리고 미련하다는 사실을 인해서 느끼게 되는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 때만 선교사였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삼히 떨었노라”(고전 2:3). 우리에게도 이런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리라. 선교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이력이 붙어서 이제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선교의 경험에 늘면서 이러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없거나 희박하다면, 우리의 자신감을 한낱 고만일 뿐이다. 이러한 긴장감이나 떨림 없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외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긴장감이나 떨림 없이 단순히 목장만 넓혀 외전 복음이 과전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죽어 있는 죄인들의 한 가운데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고대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었 드려 간구하자.

이태복 목사(원진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차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 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을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였나이다”(왕하 19:29-31).

불법 체류자 강제 출국 지침에 따라 스리랑카팀 리더들이 귀국하기 시작하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디카리와 니로사가 자진 출국하던 날, 이들의 출국 수속을 도와주던 나의 마음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실망하던 중 떠오르는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이었습니다. ‘아하, 스리랑카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여호와와 열심의 시작이로구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외선부 사역은 1996년 스리랑카인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국했을 때 외선부 사역이 끝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남은 자를 모아주셨고 외선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소망이 불붙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 왔었는데, 지금 주님이 그 일을 이뤄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리더들을 사용하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스리랑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두 귀국했음에 때 스리랑카의 상황이 좋지 않은 이 때에 이런 일꾼들을 귀국시켜 스리랑카에서 이 말씀을 여호와와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다시 모아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디카리와 니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귀국하여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부부를 통하여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이 부부와 리더들이 그 동안 귀국하였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스리랑카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스리랑카뿐 아니라 외선부의 다른 나라에도 모두 이루어주시길 믿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땅에서 온 외국인 현재, 자매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뛰었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이제 외선부를 통해 사랑을 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명자들을 키워내는 일도 여호와와 열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구영자
(전사, 외선부 교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먼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인도 델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다리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 그 동네는 티벳 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첫 번째 사역으로 인도에 있는 티벳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예정하셨음을 깨달았다.

현지 통역인 쿠마르 씨는 인도인인데 한국어를 잘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쿠마르 씨는 우리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새벽 예배도 드렸다. 또한 시장과 공원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다. 결국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정말 기뻐했다. 어떤 공원에서 단테로 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을 만났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학생들에게 찬송과 율동을 보여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외국인들이 하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보며 전도지를 받으려고 아우성이었다.

인도는 빈부의 차이가 정말 심했다. 그리고 여러 종교의 다양한 우상들은 끔찍했다. 심지어 소, 개, 돌, 물까지도 우상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헛되고 굶주린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전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벌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과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되어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다. 앞으로 인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으로 축복받는 땅이 될 줄 믿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더욱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조숙진 (전사, 7교구)

주안 성경공부를 마치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남궁양희 (청년2부)



예수님은 참 오랜 시간 동안 내 곁에 계셨다. 어렸을 때는 친구같이 편안하고 즐거운 존재로, 사춘기 이후로는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로, 대학과 사회생활 초기엔 나와 무관한வர் 그런이 떨어지지 않은 존재로 계셨다. 육신의 몸이 커갈수록 내면 인식은 적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지던 시 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내 삶에 나타난 두 가지 변화는 예배의 감격을 알게 된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서적을 보았지만, 직접적인 예수님의 목소리로 그분을 가까이 만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강의를 듣게 되었고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게 되어 행복하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철저치 하나님께 '순종' 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요한복음 안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표현을 많이 보았는데, 이것이 참 순종을 말하는 것임을 새로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 기적만을 행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큰 '인내'의 모습이다. 예수님과 반대자들의 대화는 참 인상적이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시각이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영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반대자들은 온전히 육의 관점에서 대화를 진행한다. 그런 그들의 무지에도 깊이 참으시면서 끝까지 천국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웠다. 때론 그 대화를 보면서 '저 바보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 이해할 때도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회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들의 상황과 태도에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다. 이 조건 없는, 거저 주는 사랑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는 노력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창조주 시고 온 우주를 그 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본임을 드러내준다. 인간에게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배움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은 '생명을 위해 내가 죽어야겠다'였다. 한 알의 썩어 썩지 않고서는 열매 맺지 못하듯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 놀라운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남을 죽이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날마다 나를 죽이며 내 안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깨어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도 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미비한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랑과 인내, 순종은 얼마나 더 커질까? 생각만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앞으로 더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14	이향棠	1 청년1부	강옥희(1)	1424	황성근	11 청년1부	권영호(3)	1434	서은혜	19 대학부	장진태(13)
1415	이정자	1 청년2부		1425	김덕선	11 청년2부	권영호(3)	1435	김희영	19 대학부	이승현(1)
1416	조유희	1 청년부		1426	이경주	12 청년2부	이아메(12)	1436	이승현	19 대학부	장임구(1)
1417	김태형	1 청년부		1427	민순인	12 청년2부	이아메(12)	1437	김남일	19 대학부	장임구(1)
1418	최경화	1 청년부		1428	민성희	12 청년부	이아메(12)	1438	노지연	19 청년1부	주재환(2)
1419	앤디	2 외신부	장지연(2)	1429	김수홍	13 청년2부	박승준(13)	1439	이미영	19 청년1부	정경숙(12)
1420	권희주	1 청년2부	김종원(3)	1430	박재복	14 소양부	정준근(14)	1440	이은지	19 중등3부	정경숙(12)
1421	김인수	5 청년부		1431	전재진	15 청년1부	이성삼(12)	1441	류기현	19 청년2부	이훈식(13)
1422	황화소	5 청년부		1432	송희경	15 청년2부	황기봉(14)	1442	신성강	19 청년2부	전영환(12)
1423	황화소	6 청년부	이연희(6)	1433	임지선	19 대학부		1443	문상진	19 청년2부	이혜자(12)

*순종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년 2003년 새가족 등록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회복

작년에 충현교회에 왔습니다. 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너무 괴로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기에 결정적이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청지기 훈련을 통해 괴로워하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제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거하는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력과 청정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시기도 하고, 남편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열기와 분냄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니다. 친정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 하는 것을 보니 오빠의 마음이 조금 열리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같이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현재 충현전도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기억납니다.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전하면 나고, 전하지 않으면 없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사 6:9)라고 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고 원합니다.



손은희 (성도, 2교구)

♫ 다음 주일 찬송

116장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송은 존 헨리 홉킨스(John Henry Hopkins, 1820-1891) 신부가 작시 작곡했다. 홉킨스 신부는 펜실베이니아주 핏츠버그에서 태어나 1839년 버몬트 대학을 나와 1850년 제너럴 신학교를 마치고 성공회 부제가 되었다. 그는 모교의 교회음악 강사로 있으면서 많은 찬미가와 교회용 합창곡집을 만들어 미국 성공회 찬미가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1891년 뉴욕 트로이 부근에서 일생을 마쳤다. 이 곡은 그가 37세 때 작곡하였다.

- 1절: 동방에 사는 박사인 우리들 예물을 가지고
저 별 따라 산 넘고 골 건너 멀리서 왔도다
- 2절: 베들레헴에 나신 왕이시여 만류관을 쓰시도록 황금을 바치오니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 3절: 유왕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만민이 일어나 높이 기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라
- 4절: 돌처럼 차가운 무덤 안에 봉해져 있는
주님의 몸은 몰약의 진한 향을 내뿜으시니 몰약도 주님의 것일세
- 5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화생양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과 하늘이 소리쳐 부르네

후렴: 오 놀라운 별이여 밤을 비추는 별이여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여
서쪽으로 가면서 우릴 인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빛에 이르게 하여라

초대교회 교부들은 황금, 유황, 몰약의 예물이 각각 그리스도의 신성과 순결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 찬송이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성도님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가정에배

유치부 김예중 엄마



저녁 8시 30분이 되면 온가족이 가정에 배를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자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그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입을 열어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며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주춤하기도 하고, 마귀와 지옥과 천국 등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는 진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정예배 시간에 남편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며 "첫째인 요한이요 죄인이고, 둘째 예종이요 죄인이며, 막대 예진이요 죄인이요. 그리고 아빠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요."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둘째 예종의 입에서 "맞아요. 아빠, 엄마가 가장 큰 죄인이요"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죄인 중에 죄수라고 외치는 예종의 이유는 부당했지만, 예종의 외침은 우리 부부에게 날선 겁보다 더 예리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민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가정예배는 아이들에게 성경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말씀을 통해 혼계를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예배와 자녀들을 통하여 남편과 저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다짐이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이 살아있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12)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저희 가정은 예배를 통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시 16:8)라는 시편 기자와 고백과 같이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뻐하고 흠이 없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

제11강 심방(방문해 찾아 봄)론

교회학교 교사가 학생의 집을 심방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주위에서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심방이 아이의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사 개인의 삶에서 심방자가 갈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방이라는 것은 어른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이들에게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높은 보좌의 영광에서 내리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부한자와 가난한 자, 귀한 자와 비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35-36).

우리가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아이는 주님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가치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도 지나고 가리개를 권하며 형제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행 15:36).

한 아이가 3주 이상 결석하면 찾아가십시오.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찾아가기 힘든 남자 선생님이러면 지도 교역자나 그 아이와 친한 아이들과 함께 가십시오. 교회에 가기 싫지만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게 하십시오. 다만 심방을 위해서 심방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어떤 양을 찾아 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가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함대원 기자)

2003년 은퇴자 및 근속표창자

1. 은퇴자

정로 / 2674 최태연, 5377 이병옥 (2명)

권사 / 80-32 강옥자, 529 경홍옥, 2511 구영인, 81-419 권완호, 4177 김길득, 2541 김남진, 86-644 김동래, 88-855 김영하, 712 김용성, 90-998 민병인, 89-1491 박송금, 228 박영규, 902 박진희, 4882 서인희, 83-500 손옥희, 86-640 송순자, 752 안소현, 4630 우순성, 1845 유영희, 93-22 이가옥, 92-984 임원식, 4340 장현숙, 86-497 전옥희, 3417 조순자, 82-364 최재희, 5377 한영숙, 2260 홍유순, 87-629 홍혜숙, 53 황규선 (29명)

2. 근속 표창자

20년(정로)

196 정윤석, 3393 김영길, 1584 조연재, 2164 김종구, 2436 최무길, 1371 김천재, 2366 이창호, 2041 차진숙 (8명)

20년(권사)

659 강경란, 2511 구영인, 655 김은심, 200 문명애, 568 민진식, 1845 유영희, 1815 이인자, 2471 정경자, 2459 조숙 (9명)

3. 은퇴자 및 근속 표창 - 12월 14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100원짜리 사탕의 진한 감동

소년부 김하은 엄마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분주하다. 천원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주말마다 경주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급히 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면,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다. 딸 하은이가 "엄마, 차 타고 가시면서 잡수세요" 하며 뭔가 가방에 넣어 준 기억이 났다. 가방을 뒤져 보니 성경책 옆에 100원짜리 국자사탕이 있었다. 빙그레 웃음이 났다.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국자에 설탕을 녹여 맛있게 먹었던 추억의 국자사탕이었다.

"내가 이걸 좋아하지는 어떻게 알았지." 가슴이 지러오며 그 끝이 쥘해지고 눈물이 난다. 아직도 철부지 어린애 같은데, 어느 새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 핑계(?)로 얼마 노력 제대로 해 준 적 없는데... 국자사탕의 달콤한 맛을 아끼며, 우리 딸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아는 아이로까지 어느덧 자랐다는 사실에 새삼 진한 감동이 온다. '이 손길에 항상 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소서.' 딸 아이의 작은 손길을 통한 100원짜리 국자사탕이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었는지. 그 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피곤이 눈독들 순간에 사라진다. "하은아, 넌 모르지? 너의 작은 사랑이 담긴 100원짜리 하은이 사탕이 엄마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었는지."

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억이 기억난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배는 저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췌떡매고 있을 때, 서슴없이 내어 놓은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배고픈 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그 어린 아이가 내어 놓은 작은 도시락을 축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듯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서 비롯됨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렇게 작은 곳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겸손한 마굿간 말구유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성탄절이 다가온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들어지는 겨울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아기를 통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100원짜리 국자사탕의 진한 감동을, 이 겨울에 다 가기 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생각해 본다.

